

# 2005 춘계 대한지리학회 대학원생을 위한 특강 내가 본 「현대한국지리」

박영한(서울대 명예교수)

## 〈특강 내용〉

- 지리학과 지역지리학
- 현대 한국지리학의 목표
- 분단 국토와 지역 변동
  - 지역 구조 형성력
  - 지역구조 변동
  -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 풀어가야 할 몇 가지 과제

「내가 본 현대 한국지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한국지리」를 강의하여 오면서 형성된 하나의 관점이다. 한국지리에 관한 나의 관점은 해마다 바뀌는 생각 때문에 일관된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장기간을 방황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다. 정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나마 생각한 한국지리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나의 관점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토론의 대상이 되어 현대 한국지리를 탐구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리학은 기본적으로 지표의 다양성과 지표현상의 분포에 관심을 가진다. 전자는 지표상의 부분지역의 성격규명을 통해서 전체상을 조망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지표공간의 전체를 대상으로 지표현상의 요소를 살핀다. 지리학은 장소와 공간의 과학이다. 지리학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또는 넓게, 좁게 표현된다. 그것은 지표와 그 현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그 정의 속의 주요 용어들을 추출하면, system과 distribution 그리고 relation 또는 interaction이란 단어가 주로 발견된다. 따라서 지리학이 하는 일은 지리적 체계와 지리적 분포 및 지리적 관련성을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리학은 변화무쌍한 삶의 터전에 관한 의문을 풀어주는 학문으로, 우선적으로 입지와 분포에 관심을 가지고 제현상의 공간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지역연구로서의 지리학은 지역에 얽혀있는 여러 현상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지역 조직과 구조를 밝혀내고, 그것들의 특성이 전체 지역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어 배열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지역을 지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지역지리학은 지역 변동과 지역 질서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지리」는 지역연구의 대상이므로 지역지리학적 관점에서 우리 국토를 조명해야 된다. 지리적 지역은 영역성과 체계성 그리고 등질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지역지리학은 전체 속의 부분을 살피고 부분의 통

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지리학은 현재적 시점의 학문이므로 영역적으로 한반도가 그 대상이 되나, 영역의 변동 과정은 역사지리학적으로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현대 한국지리학이 밝혀야 할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변동과 지역질서를 규명하는 것이며, 이것은 일반성과 특수성을 함께 다루어야 파악될 수 있다. 부연하면, 한반도의 지역변동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지역질서를 찾아내는 일이다. 지역변동은 지역구조변동과 지역성의 변화를 포함하므로, 지역질서는 지역구조와 이를 통한 지역성의 규명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한국지리 탐구에서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지역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구조와 지역성은 무슨 요인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력으로서의 기본 가설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은 생산·생활양식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므로, 현대 한국지리의 전개는 현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에 기초해야 지역구조와 지역성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되는 지역질서는 지식·정보사회의 생활양식에 따라 형성되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지역구조 형성력을 산업화라는 이 시대의 보편적 잣대로 설명하려 한다. 한반도의 지역질서는 이처럼 보편적 설명력만으로 규명될 수 있겠는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한반도에는 일반적 요인 못지않게 특수 요인이 근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특수 요인이란 바로 국토의 분단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분단 요인이 한반도의 지역구조와 지역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풀어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본다. 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한 남북의 치열한 투쟁이 한반도의 공간상에 투영되고 있음을 이해해야만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의 지역변동과 지역질서의 형성과정을 근본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분단 요인이 지역구조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지역구조 형성력과 지역구조는 다음의 두가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두가지 그림은 발표 당일에 배포하고자 함)

라우텐자흐는 일찍이 한반도의 지역질서를 형태변이론에 기초하여 대륙성과 해양성의 점이적 이행 과정으로 보았다. 이때의 대륙성과 해양성은 농업 생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력을 지표로 삼았다. 이것은 일차산업이 인류의 보편적 생활양식이었던 시대에는 적합한 잣대였다. 라우텐자흐는 일제 식민지의 수탈이 강화됨에 따라 해안 거점과 내륙간의 관계가 부분적인 지역구조 형성력을 이룬다고 보았다.

오늘의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세계체제 내에서 전쟁과 분단을 매섭게 경험한 특수상황을 기본으로 하고, 남북간의 정책적 차별성과 산업의 진전 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한반도의 지역질서는 분단에 연유된 안보적 중추성에 의한 중심-주변성의 전개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한국지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더 있다.

'한국지리'를 강의하면서 아직도 풀지 못한 과제들이 몇 가지 더 있다. 그 중 하나가 '변동의 지리학'이다. 분단 이후 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례 드문 압축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세대는 전산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로 빠르게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국토 공간상에 투영되어 나타난 지역 현상들을 '변동의 지리학'으로 체계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공간이 바로 그 실험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변동 과정의 유형화로부터 시작하여 그 과정의 질서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토의 주위에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반도의 특수성인 분단 상황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연구는 한국지리 전개의 필수적 과제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성과 개체 국가론'을 살피는 것보다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개체 국가로 유지·존속된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한국지리 연구의 주요 주제라고 본다. 이것은 미래 한국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와 결부하여 우리의 강역을 역사지리적으로 탐구하여야만 영토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연구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도 진전시키고 있다. 지리학에서도 늦지 않게 동북아의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생산 공간과 지역구조적 질서를 연구함으로써 한반도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재편되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리학에서도 북한지역 연구와 통일 한반도의 지역질서 연구를 시급히 진행시켜야 한다. 한국지리를 강의하면서 반쪽의 국토만을 다루는 죄책감을 느껴왔다. 정년을 앞두고 대학원의 한국지리 세미나에서 한 학기 동안 북한의 지역구조를 안보적 요인과 결부시켜 스쳐 지나치기도 하였다. 두서 없는 언급들을 정리해 보면, 현대 한국지리학이 국토 공간의 변동성과 발전성, 존립성과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나간다면, 지리학적 한반도 연구는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